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창 39:1-6)

뮤지컬 '다윗 왕' 공연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가 다음 달 17일(금)-19일(일), 창작 뮤지컬 '다윗 왕(King David, 부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을 선보인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 공연은 공연 시간이 2시간 30분에 달하며 출연 배우만 120여 명에 이르는 대작이다. 공연 준비에 1년 5개월이 걸렸으며, 8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연은 초대형 LED 스크린으로도 재현해 한국어를 모르는 한인 2세와 타인종들을 위해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공연 시간은 6월 17일(화) 오후 7시30분, 18일(수) 오후 7시, 19일(목) 오후 6시 30분이다. 티켓 가격은 10달러이며 구입처는 은혜한인교회 은혜서점, 세리토스 북음사, LA기독교서점 등이다.

문의: (925) 899-5707, ark1kim@gmail.com

'미주한인교회사' 발간 KCMUSA

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이사장 박희민 목사, KCMUSA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미주한인교회사'를 발간한다.

박희민 목사는 "미주한인교회 목회자가 1세 중심에서 이젠 1.5세, 2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1세 목회자나 초기 성도들의 별세 등으로 인하여 이민교회 역사적 기억과 자료들이 크게 소실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발간된 '미주한인교회사'는 미주한인교회의 역사를 집대성한 귀중한 자료로 전승될 것"이라고 책 출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미주한인교회사' 집필진으로는 이민교회를 이끈 목회자 100여 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1904년 하와이 이민부터 1960년대 미국 본토의 정착 시기까지, 그리고 1970년대 한인교회 부흥의 시대부터 2000년대 교회의 정체 시기까지를 담은 이민교회의 발자취를 600페이지 분량으로 기록한다.

10월경 발간 예정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 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 보려고 합니다.



▲ 이미지=shutterstock

1.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
성경을 보면 누구나 좋아하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의 가족 70명이 흉년에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꿈이 있는 사람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꿈을 쓰십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열 일곱 살에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추수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베어 놓은 단과 형들이 베어 묶어 놓은 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번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별을 향하여 해, 달 그리고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평생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꿈을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3.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을 좋아합니다. 무슨 일을 맡겨 주든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월드컵 경기가 끝나고 감독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진 팀의 감독들은 다 쫓겨 났습니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감독은 쫓겨 났습니다. 쫓겨난 감독은 갈 곳이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인생을 비판하였다는 말씀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알고 열심히 종살이하였습니다. 주인이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요셉은 감옥살이 할 때도 감옥 생활에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감옥장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요셉을 좋아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맡든지 이렇게 충실한 사람을 사람들은 왜 싫어하겠습니까?

4. 일을 즐기는 사람

사람들은 일을 즐기는 사람을 좋

아합니다. 짜증내지 않고 맡은 일을 취미처럼 그렇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종살이를 즐기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종살이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주고, 주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원수를 갚고 말겠다고 버리지 않았습니

다. 주어진 환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종살이도 감옥살이도 한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

다. 있는 곳을 즐겼습니

다. 누욕 아스토리아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만난 인상깊은 장로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72살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생각난 것이 교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장로님은 매주 월요일이면 교회에 나와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80세입니다. 만 8년을 한 주도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란 고백하였습니다.

이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즐겁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강문호 목사-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2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5	6			9		2	3
	9			1	4		
		6	2				5
3						1	
		1	5	3			2
				4			
6	5		7			2	4
		3				7	8
4		7		1	5		